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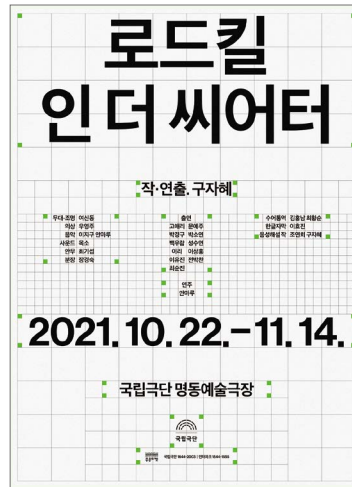
#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국립극단

국립극단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작·연출 구자혜



작·연출의 글	은유가 될 수 없는 말을 무대 위에서 하기 위하여 ■ 구자혜	2
작품 목차		3
출연진		4
작품 이해돕기—1	투명하게 두꺼운 작은 상자 안에서 ■ 오혜진	8
작품 이해돕기—2	동물권에 대한 담론 ■ 이리·성수연	12
작품 이해돕기—3	연극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작품 속 사건들	17
작품 이해돕기—4	장애인식의 현주소: 배리어프리에 대해 ■ 김홍남	20
사운드 스케치	마주보기, 그리고 ‘듣기’의 연습 ■ 목소	23
연습 스케치		25
스태프 프로필		28
만드는 사람들		30

## 은유가 될 수 없는 말을 무대 위에서 하기 위하여

구자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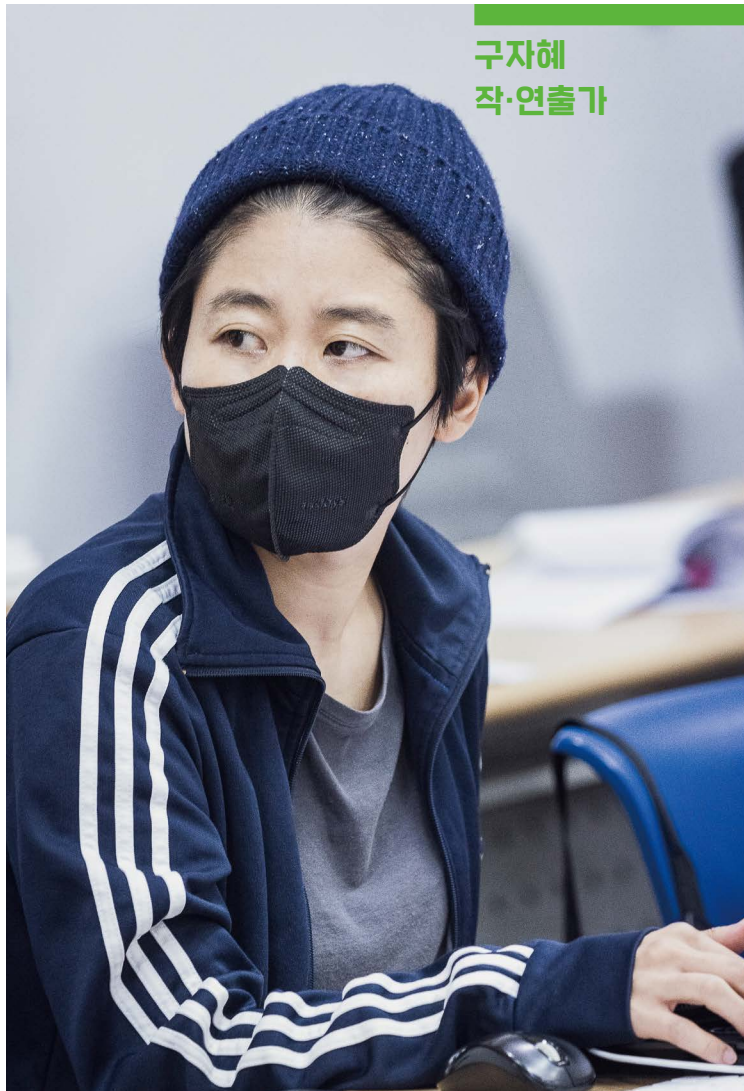
‘여기는 당연히, 극장’ 대표

동시대 문제를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방식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문과 회의로부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힘있게 드러내며, 연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무대 발화를 배우들과 함께 고안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트랜스젠더 프라이드로 강렬한 선언의 발화를 제시한 <우리는 농담이(아니)야>와 팬데믹 이후, 무대 위 재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룬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가 있다.

수상

- 2021 제 57회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작품상)
- 202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 2020 제57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 2016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
-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commercial, definitely\_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 2010 제13회 신작희곡페스티벌 <먼지섬> 당선

구자혜  
작·연출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덧씌워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기 위해  
무대 위에서 죽음을 시작했지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끝낼 수도 없는 한 고라니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용을 등장으로  
출연을 출현으로.



## 【목차】

죽은 동물을 만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난 사람

바<sup>bar</sup>에 앉아 경주를 지켜보는 자들

길거리를 헤매다 우주로 떠난 잡종 개

5년 만에 돌아와 인터뷰하는 비둘기

인생에 단 한 번뿐일 풍경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한 가족과,  
새끼를 낳기 위해 혹은 독립을 위해 길을 건너는 고라니

개학교에 보내진 개

기차길 옆 작은 집, 울고 있는 비둘기들

인터내셔널 비둘기

한 밤 중 배에서 파도 소리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는 동물

## 【등장】

A	북미멧새
통역사	부모1
B	부모2
사람1	세일즈맨 윌리
사람2	다니엘
사람0	파트라슈
마카스 원숭이들	개
클레파	패터슨과 마사
라이카	콜린과 줄리아
구소련의 아주머니와 아이들	토마스
비둘기들	뽀빠
화이트 테일	동네사람들
바둑이	비둘기형제들
벨카와 스트렐카	조겐슨 외
고라니	
DJ	





## 출연진

### 고애리 Go Ae-ri

개 외 Dog et al.

연극

〈파우스트 엔딩〉 21 | 바우키스 외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20 | 정연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메모리 인 드림〉 19 | 앨런 | 대학로 해오름 예술극장  
 〈어둠상자〉 18 | 강윤아 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B클래스〉 18 | 서정인 | 수현재씨어터  
 〈소〉 17 | 우연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스의 여인들-안티고네〉 17 | 안티고네 | 나은씨어터  
 외



### 문예주 Moon Ye-joo

비둘기 외 Pigeon et al.

연극

〈SWEAT 스위트〉 21 | 제시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X의 비극〉 21 | 안도희 | 국립극단 소극장 판  
 〈스카팽〉 20 | 아르강뜨 외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외  
 〈화전가〉 20 | 금실이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보이 겟츠 걸〉 17 | 테레사 비델 | 동송아트센터 동송소극장  
 〈맘모스 해동〉 14 | 부인 |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  
 〈당통의 죽음〉 13 | 줄리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외



### 박경구 Park Kyung-koo

비둘기 외 Pigeon et al.

연극

〈문정왕후 윤씨〉 21 | 조광조 | 눈빛극장  
 〈Tribes〉 19 | 아빠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양배추의 유래〉 17 | 오빠 | 선돌극장  
 〈가해자탐구-사과문작성가이드〉 17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commercial, definitely〉 16,15 | 맨스플레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두 코리아의 통일〉 16 | 선생님 외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루시드 드림〉 11,10 | 목사 | 소극장 산울림 외  
 외





**박소연** Park So-yeon

북미멧새 외 Sparrow et al.

**연극**

〈사랑II〉 21 | 실망가득블루청룡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햄릿〉 21 | 마셀러스 외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온라인극장)  
 〈화전가〉 20 | 홍다리택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두뇌수술〉 19 | 속향 | CJ아지트 대학로  
 〈영지〉 19 | 효정 | 국립극단 소극장 판  
 〈페스트〉 18 | 오통판사 부인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청춘예찬〉 16,17 | 여자 | 아트포레스트 아트홀  
 외



**백우람** Baek Woo-ram

고라니 외 Water deer et al.

**연극**

〈들판에서〉 16 | 둘째 | 이음센터 5층  
 〈너는 바다〉 14 | 형 | 대학로 선돌극장 외  
 〈고도를 기다리며〉 13-10 | 블라디미르 | 성미산마을극장 외  
 〈함께 부르는 노래〉 09 | 민수 | 풀빛극장  
 외

**수상**

2019 나눔연극제 연기상 외



**성수연** Sung Soo-yeon

라이카 Laika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21,20 | 김c 외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액트리스투: 악역전문로봇〉 21,20 | 국립극단 소극장 판 외  
 〈액트리스원: 국민로봇배우 1호〉 21,19 | 국립극단 소극장 판 외  
 〈로테르담〉 19 | 엘리스 | 나온씨어터  
 외

**수상**

2019 제 55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외





## 이리 Iri

비둘기 외 Pigeon et al.

###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21, 20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스탠드 업, 그라운드 업 Vol.2〉 20 | 1M SPACE  
 〈7번국도〉 17 | 동훈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연극실험실해화동1번지〉 18, 16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외  
 〈킬링타임〉 17, 16 | 광장극장 블랙텐트 외  
 〈제로섬 게임〉 16 | 운영자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데스데모나는 오지 않아〉 13 | 맥베스부인 | 소극장 산울림 외



## 이상홍 Lee Sang-hong

개 외 Dog et al.

### 연극

〈만선〉 21 | 도삼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X의 비극〉 21 | 박우섭 | 국립극단 소극장 판  
 〈햄릿〉 20 | 클로디에스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불꽃놀이〉 20 | 우영 외 | 국립극단 소극장 판(온라인 극장)  
 〈명왕성에서〉 19 | 잠수사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18 | 김씨 | 대학로 예술공간 해화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장 | 예술공간 서울 외



## 이유진 Lee Yoo-jin

새 외 Bird et al.

### 연극

〈사랑II〉 21 | 불안장애레드주작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X의 비극〉 21 | 안영자 | 국립극단 소극장 판  
 〈스카팜〉 20 | 이상재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불꽃놀이〉 20 | 광옥 외 | 국립극단 소극장 판(온라인극장)  
 〈화전가〉 20 | 박실이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19 | 멀티 |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  
 〈나팔봉〉 19 | 유소령 부인 외 | 동양예술극장 3관 외

## 전박찬 Jeonbakchan

B

연극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20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20 | 문성(B)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대신목자〉 20 | 유재 | 아르고예술극장 소극장

〈7번국도〉 19 | 주영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에쿠우스〉 18,14 | 알런스트랑 | 충무아트센터 외

〈이방인〉 18,17 | 외르소 | 소극장 산울림

〈매일 만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사랑했었다〉 09

|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외



## 최순진 Choi Soon-jin

벨카와 스트렐카 외 Belka and Strelka et al.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21 | 주인공씨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20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Tribes〉 19 | 다니엘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타즈매니아 타이거〉 18 | 선생님 |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외

수상

2021 제57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남자 연기상



## 안마루 Ahn Maru

연주자 Musician

연극

〈DRAGX남장신사〉 21 | 음악감독 및 연주자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공연

〈라이브클럽 클럽 빵 기획공연〉

〈복합문화공간 야시시 기획공연〉

〈LG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바자회X음악회〉

〈카페 언플러그드 open mic〉

〈손수현과 안예은의 이어달리기-트랜스젠더편〉

외



## 투명하게 두꺼운 작은 상자 안에서

오혜진 \_\_\_\_\_ 문학평론가

고요한 밤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당신은 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 알아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 유감스럽달까 흥미롭달까,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작업자들은 드디어 혹은 기꺼이 ‘재현representation’에 관한 수많은 철학자와 미학자들의 예의 그 유서 깊고도 고약한 질문에 깊이 엉켜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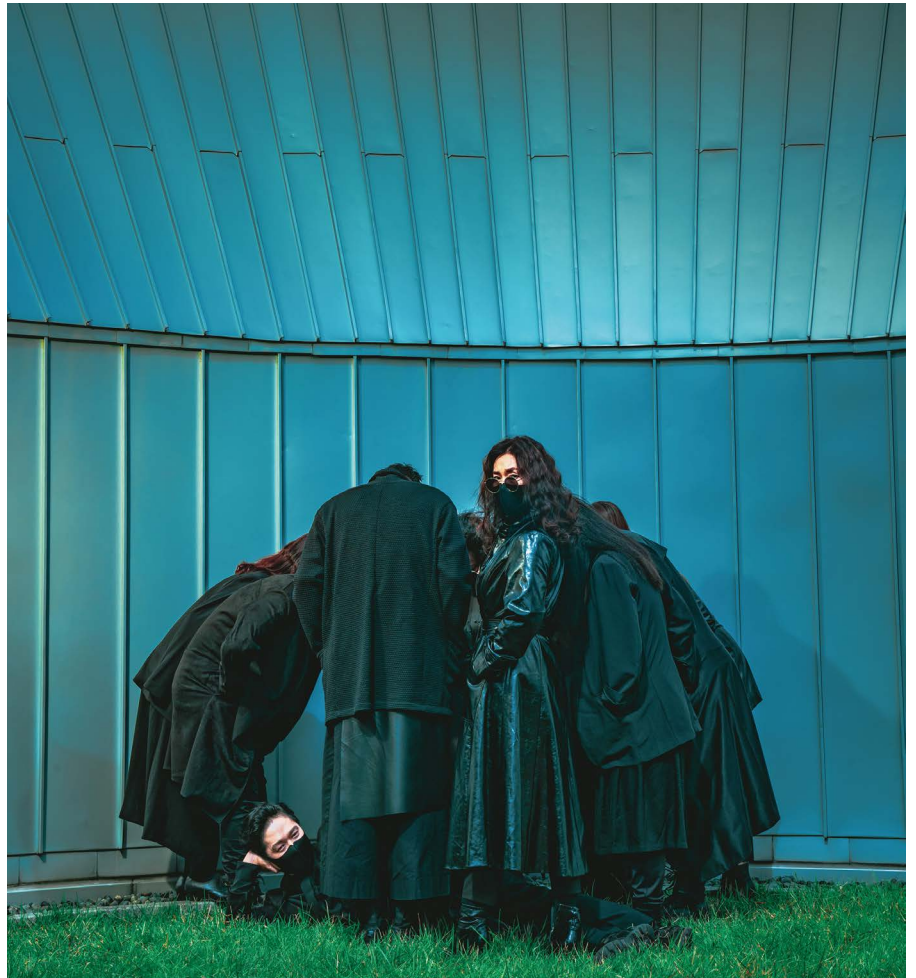
■ 한스 블루멘베르크, 조형준 역,  
『난파선과 구경꾼: 항해로서의 삶,  
난파로서의 이론』, 새물결, 2021.

‘관람의 대상이 된 타인의 고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유비는 ‘난파선과 구경꾼’이라는 은유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블루멘베르크<sup>■</sup>는 이 은유에 대한 철학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정리해 한 권의 책을 썼을 정도다. 이 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난파’는 신이 허락한 영역, 즉 육지를 벗어나고자 한 인간에 대한 처벌로 간주했기에,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난파의 모습을 물에서 지켜보는 자’를 인간의 오만에 대한 교훈을 얻은 ‘현자’로 여겼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 역시, 구경꾼이 ‘단단한 해안에 발붙이고 있는 것’은 그가 소유한 ‘거리를 두는 능력’ 덕분이라며 관람의 쾌락을 정당화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자답게 볼테르는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항구를 떠나려는 의지’가 동반될 때에만 ‘진보’가 가능하다고, 구경꾼의 호기심을 도덕의 차원으로 이동시켰다.

반면,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는 이미 승선했다!”라는 선언을 통해, 어느 쪽이 ‘난파하는 자’이고 어느 쪽이 ‘구경하는 자’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과감히 흘트려 놓는다. 그가 보기에, ‘삶이 곧 항해’라면 ‘삶’에는 가라앉거나 구조되는 것 외에 다른 선

■ 마틴 제이, 광영빈 역, 『난파선 속으로 잠수하기: 세기말의 미적 관객성』, 『자음과모음』 25, 2014. 9.  
 ■ 수전 손택,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67~68쪽.  
 ■■ 한스 블루멘베르크, 앞의 책, 101쪽.

택지가 없다. 그러니 자신이 단단한 육지에 있다고 믿는 것도 기만적인 환영일 뿐이다.<sup>■</sup> 비평가 수전 손택<sup>■■</sup>의 지적은 한층 더 신랄한데, 그에 따르면 “고통을 담은 이미지를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격감시키려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관음증 환자”에 불과하다. 난파선 구경을 ‘연극 관람’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아베 페르디난도 갈리아니 역시 “위험은 무대 위에서 연기되며, 안전은 처마지붕 밑의 안전<sup>■■■</sup>”이라고 확신한다. 연극 속 사건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기에 관객은 ‘진정한 불안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제 구경꾼에게 부여된 도덕적 차원은 심미화된다.



〈로드킬 인 더 씨어터〉는 손택과 갈리아니가 묘사한 ‘구경꾼’과 ‘재현’(이미지/연극)의 위태로운 성격을 더욱 혹독한 방식으로 상기시킨다. ‘예술’이란 결국, 고통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려 깊게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사자의 목소리에 창작자의 “미감”을 덧붙여 자기만족과 관객의 웃음·눈물·감동을 짜내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마치 ‘자동차에 치이는 고라니’가 된 것처럼 연기하며, 관객은 그 광경을 목도하기 위해 여기 ‘극장’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잠복해 있다. 그 ‘죽음’을 몇 번이고 드라마틱하게 ‘제시’하기 위해 온갖 “빛”과 “소리”의 기술 장치를 투여하는 꽤 “노련”하고 “괜찮은” 예술가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 그 고라니가, 개가, 비둘기가, 지금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죽음이 상연되는 장면을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연극은 우선 묻는다. “꼭 그래야만 했”냐고. 타자의 고통을 ‘더 잘 보이게’, ‘더 잘 들리게’ 재현하는 것이 “예술영화의 롱테이크”, “윤 포세적 침묵” 따위의 ‘예술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미감’은 심판받지 않아도 좋으냐고. 아니, 더 쉽게 말하자면, 차에 치이기 직전 고라니의 “매혹적인 동그랗고 맹한 큰 눈”을 인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져 결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개의 그토록 “귀엽”고 해맑은 얼굴을 각인시키는 것은 대체 어떤 ‘미감’이냐고. 물론, 이건 그저 ‘거장’의 악취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고통 이미지의 인종학에 대한 손택의 지적이 떠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유럽에서 찍힌 희생자들의 사진 대부분이 피사체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절된 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들은 “주로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있는 희생자들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잊지 못할 사진”이 된다.<sup>■</sup> 그렇다면 과연 식민지의 이국적인 존재를 구경거리로 만듦으로써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해내던 이 “묵은 관행”이 지금 고라니와 개와 비둘기 같은 비인간 동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포착하려는 그 ‘미감’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수전 손택, 앞의 책, 109~112쪽.

하지만 여기까지는, 즉 소위 ‘재현의 윤리’에 관한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이 성실하고도 집요한 심문은, 말하자면 그 ‘윤리적 효용’ 때문에 아직 관객의 마음을 쓰라릴 정도로 아프게 헤집어놓지는 않는다. 관객의 엉덩이가 가시방석에 놓인 듯 따가워지는 것은, ‘연극’ 나아가 ‘예술’의 존재의의 자체에 대한 이 연극의 불온하고도 위악적인 메시지가 기어이 발설될 때다. 밤바다의 압도적인 풍경이 완벽하게 보이고 잔잔한 파도 소리조차



놓치지 않을 만큼 한없이 얇고 투명하되, “찬 바닷바람”과 날아드는 “새들”로부터 방 안의 사람들을 보호할 만큼의 두께는 요구되는 “유리창”. 없는 듯 있어야 하는 유리창. 이것이 곧 타자의 고통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되 관람자의 안위를 침범하지는 않을 정도로만 치명적이어야 하는 ‘예술’의 위상과 오버랩되지 않을 방도가 있을까. “없는 줄” 알 정도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존재해야 하는 예술이라니.

그런데 여기서 잠시 기억할 것이 있다. 흔히 수전 손택은 알량한 연민만을 자아내는 ‘이미지의 효용’을 냉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또한 모든 것이 ‘이미지/스펙터클화’되었다는 어떤 이들의 주장, 즉 어떤 재현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단련된, “이 세계의 부유한 곳, 그것도 뉴스가 오락으로 뒤바뀌어버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극소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습관”을 보편화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전쟁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들은 그저 사람들의 사악한 호기심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탄이 터지기를’ 기다린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민간인 희생자만큼이나 위험에 자주 노출됐고,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누군가를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선인의 말이나, “더 많이 본 사람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다”는 호라티우스의 금언을 되새겼을지도 모른다.

과연 고통의 재현을 보는 것은 정말 비윤리적인가. 그런데 ‘재현’을 통하지 않은 채 타자의 고통을 접하는 일이 가능하거나 한가. 고통을 재현하는 예술은 관객이 ‘고통의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차에 치인 고라니를 재현하는 일은 이미 끊어진 고라니의 숨을 다시 잇지 못한다. 그렇다고 고라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저 동정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재현예술의 유일한 야망은 아니다. 재현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

누군가 고라니가 한가롭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해보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고라니를 위협하거나 기만하는 무엇도 없는 세계란 대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 ‘얇고도 두꺼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단서라도 움켜쥐려고 분투한다. 고라니가 건너는, 건널지도 모르는 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본다’.

##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이리 \_\_\_\_\_ 배우

### 1. 동물

지금 세계는 인간 중심의 세계이다. 지구는 인간과 인간이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이 전체 동물의 98%를 차지하고 야생동물이 2%다. 인간도 동물이며 이 글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비인간 동물을 동물로 지칭하려 한다.

### 2.

〈인간에게 동물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동물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편의에 의한 분류라고 설명한다.

### 3.

야생동물은 인간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거주지와 먹이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인간이 원하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농장동물을 먹이기 위한 막대한 작물이 필요하고 그 작물을 얻기 위한 경작지를 위해 숲과 초원이 파괴되고 야생동물은 거주지를 잃는다.

### 4.

공장식 축산을 통해 인간 동물 외에 동물의 대부분인 농장동물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원래 수명보다 일찍 도살된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먹이기 위해 생존하는 동물의 삶은 자연스럽지 않다.

## 5.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만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방 세제, 화장품, 의약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실험하며 의약품의 경우 재료 자체를 동물에게서 추출하기도 한다.

## 6.

동물원과 체험 농장, 동물 카페의 동물들은 학대, 원하지 않는 인간과의 접촉,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으로 미쳐간다.

## 7.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 고어방 이용자는 단지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펫샵과 번식장에서는 품종견과 품종묘를 생산하기 위해 동물들이 갇혀서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 8. 로드킬과 방음벽

동물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물이 가는 곳에 도로가 만들어져 차가 다니거나 투명한 방음벽이 세워지거나 유리로 만들어진 고층 건물이 세워진다. 인간의 편의와 합리를 위해 동물의 통로에 길을 놓고 인간의 미감을 위해 투명한 건물을 세우고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해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

## 9. 해양 쓰레기와 버려지는 물살이

먹히는 고기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은 없다. 물에서 사는 동물은 물고기가 아닌 물살이라 부르자.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어업 쓰레기이다. 또한, 무차별로 혼획한 후 상품성이 없는 물살이는 죽어 버려진다.

## 10.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고 먹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과 다른 존재일 뿐, 인간보다 열등하고 무섭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 현대의 인간은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에 젖어 자연과 동물을 사용하고 죽이고 학대하는데 거리낌도 윤리적 판단도 없다. 윤리

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듯이 동물을 인간적 기준으로 열등하다 평가하면서도 동물을 대하는 데는 인간이 상상해 낸 동물적 태도로 동물을 대하는 것의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일한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면 동물을 대할 때도 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인간도 인간 동물이며 여타 동물과 다를 바 없다면 비인간 동물도 인간과 평등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끔찍한 이중잣대에서 비롯된 학살과 학대를 멈춰야 한다.

## 11.

연극은 어둡고 소외된 곳,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대변되어야 하는 곳을, 존재들을 무대에서 가시화하고 대사로 발언권을 주는 일을 해왔다 믿는다. 이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예술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 인간 이외의 범위로 이 일을 넓힐 수 있을까. 연극을 하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이며 이성애 중심적, 비장애인 중심적,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알았고 공연의 내 외연을 그러한 권력이나 위계 구조를 탈피하는 쪽으로 작업자의 사고의 폭부터 넓히려 애써왔고 문득 동물과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다.(혹은 그 날이 오고 말았다) 인간 사회에 대해 공연에서 올바르게 다루어 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읽을 수 있고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을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동물은 어떤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보는 공연 속에서 동물이 어떻게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는지 인간이 말할 수 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페미니즘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지 깨달은 후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도 동물이며 이 세계의 일부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비인간 동물을 연기하는 인간 동물

성수연 \_\_\_\_\_ 배우

당사자성과 대상화의 문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연기할 때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이번에 고려해야 할 것들은 그 방향도 크기도 인간을 연기할 때와는 다르다.

이 공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피해를 당한 동물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동물이 아니라, 진짜로 피해를 당한 동물. 인간 배우가 등장하여 인간의 언어로 동물의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동물의 비극을 통해, 인간의 비극을 보는 순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연극 세계 안에서 내가 맡은 배역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동시에 이 세계 안에서 동물이 인간에 의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다음은 ‘동물’ 혹은 ‘동물 연기하기’를 연기하며 발생한 여러 질문의 일부이다.

### 5.

동물을 대상화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을 대상화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가.

### 4.

무대에서의 대상화 작동원리와 현실에서의 대상화 작동원리 사이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해볼 수 있는가.



### 3.

그 개가 느꼈을 감정이나 감각을 알기 위해, 내가 느꼈던 그것들에서 출발하는 게 과연 맞는가.

### 2.

인간의 언어라는 틀로 하는 그 개에 대한 내 사유는 얼마만큼 충분하고 얼마만큼 불충분한가.

### 1.

나는 그 개가 될 수 없다. 내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배우는 배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연에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물’ 혹은 ‘동물연기’를 연기하는 인간 배우 단위에서 일단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을 연극에서 ( )할 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던 것들과 해야만 한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심해본다. 이 질문의 끝에서 믿어오던 것들이 공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 새로운 생각을 찾게 될지 두고 보고 있다. ‘누군가’에 비 인간 존재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에 질문의 방향 또한 달라진 것이고,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도 분명 그 결론이 포함하고 있는 생각들의 크기는 달라져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가고 있다.

극장에서 어떤 것들은 마법처럼 힘을 얻고 살아났다가, 사라진다. 사라짐을 전제로 하는 이 연극이라는 것에서, ‘로드킬’ 또한 연극과 함께 사라지기 쉬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씨어터까지의 여러 길을 천천히 꺾꺾 밟으며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끝날 수 없는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을 씨어터에서 완결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다.

## 연극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작품 속 사건들

### 최초로 우주에 진입한 지구의 첫 개, ‘라이카’



1959년 루마니아에서 발행된 라이카 기념 우표  
\_public domain

◀라이카\_public domain

최초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개, 라이카(Лайка)(1954년~1957년 11월 3일). 본래 이름은 ‘쿠드라프카(Кудрявка)’로, “라이카”는 품종명이다. 모스크바 빈민가를 떠돌아다니던 중 과학자들에 의해 발탁된 쿠드라프카는 다소 침착한 성격과 영리한 두뇌를 지녔기에 최종 우주견으로 선발되어 1957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스푸트니크 2호는 대기권 재돌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958년 4월 14일, 대기권 재돌입 시에 붕괴되었다. 라이카는 재돌입을 앞두고 독이 들어 있는 먹이를 먹여 안락사시켰다고 알려졌었으나 1999년 여러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라이카는 캐빈 결함에 의한 과열로 발사 4일 뒤에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 10월, 스푸트니크 2호의 계획에 참여한 드미트리 마라시코후가 라이카가 발사 수 시간 뒤에 과열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참여한 일부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라이카의 죽음을 방치한 것에 대한 후회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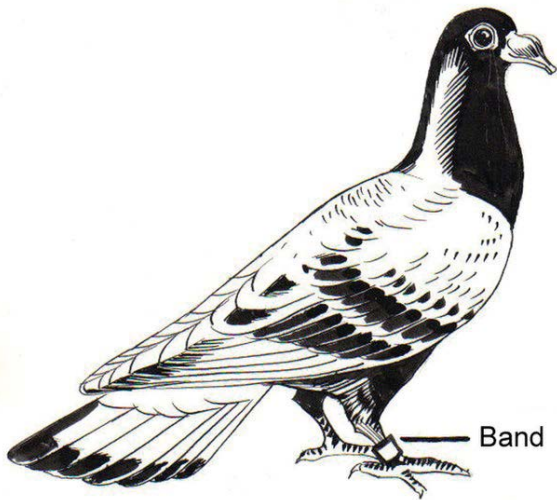
## 88올림픽에서 불타오른 평화의 상징

개막식 성화 점화 때는 ‘비둘기 화형식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성화가 점화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 놓은 비둘기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2 런던올림픽 특집판에서 바로 이 비둘기들의 ‘화형식’을 거론하며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역대 최악의 개막 행사로 꼽았다. 당시 서울올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불에 탄 비둘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날아갔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때를 교훈 삼아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이후 비둘기를 폐회식 때 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로 밤에 개회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애틀랜타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막식 때 비둘기를 날리는 행사를 없애기로 하면서, IOC는 앞으로 모든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행사에 활용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출처: 요즘 애들은 모르는 88 서울올림픽 이야기. BRAVO. 2021

## 비둘기 경주 Pigeon Racing



비둘기 경주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벨기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도 비둘기 경주는 세계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대만과 중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로, 지난 2020년 우수한 경력의 경주용 비둘기가 160만 유로(한화 약 21억7천만 원)에 팔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주’라고 해서 100m, 1,000m 경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비둘기는 자기장과 후각, 뛰어난 시각 인지능력으



로 방향감각과 귀소본능이 탁월해 예로부터 ‘전서구傳書鳩’로 불리며 수천 년 전부터 전장에서 통신병 역할을 할 정도였다.

1900년 파리 올림픽에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었는데, 당시 고유식별번호가 새겨진 링을 비둘기의 다리에 부착하고 동지에서 기다리던 주인이 링을 제거해 ‘피존 클락pigeon clock’이라 불리는 시계에 넣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했다. 비둘기 경주는 ‘출발점은 1개, 결승점은 1,000개인 스포츠’라 칭해지듯이 동지의 위치가 주인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비행 거리와 소요시간을 측정해 가장 빠른 평균속도를 보인 비둘기가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출처: bestan, 박지홍

## 장애인식의 현주소: 배리어프리에 대해

김홍남 \_\_\_\_\_ 수어통역사

나는 농인(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보다 농인 가정의 문화 향유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농인 가정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선택은 건청인 가정의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공연이 어떤 내용인지, 평가가 좋은지, 재미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지, 관람 가능한 날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공연이 재미있든 없든, 어떤 배우가 나오든, 장르가 무엇이든, 주중이나 주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가는 중요치 않다. 오직 수어나 자막이 있는 날이 언제인지, 제공된 그 날과 수를 세야하는 것.

이것이 농인 가정에서 공연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농인의 문화 향유권이다.

세 가지 농인 가정의 상황의 예를 들어보자.

### 농부모와 청인자녀(CODA)

일반적으로 농인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역할은 수어통역사가 아니라 농부모와 일상을 같이하는 그들의 자녀, 코다들이다.

코다들은 농부모의 일상과 공공 생활, 더 나아가 문화생활에도 밀접히 관여되어진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즐기는 시청 시간. 보통은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질문을 농부모가 코다에게 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청 시간이 코다에게는 자주 정보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의 시간이 된다.

## 청인부모와 농자녀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자.

수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청인부모가 농자녀에게 수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생활을 위해 인기가 많았던 ‘겨울왕국’을 보고자 한다.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아 더빙은 들을 수 없고, 너무 어려 자막을 읽지 못한다. 하지만 수어통역버전의 ‘겨울왕국’이 없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영화를 보며 더듬더듬 수어를 한다. 물론 엄마는 전문 수어통역사가 아니다. 아이에게 수어통역을 하기 위해 엄마는 이 영화를 미리 봐야 했을까? 혹시 자녀와 엄마가 즐겁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농부모와 농자녀

통합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봤던 연극, 영화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도 때론 학습자료로 연극을 소개하거나 재밌었던 연극이나 영화를 말한다.

아이는 엄마에게 말한다. “나도 연극도 보고싶고, 영화도 보고싶고, 그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

엄마는 생각한다. “문화바우처는 있지만, 수어통역버전도, 한글자막도 없는데 어떡하지?”

과연 이들이 함께 편안히 즐길 문화가 있을까?

배리어프리는 다양한 농가정이 그들의 자녀 혹은 형제 그리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수고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접근을 위한 서비스이다.

연출자에게, 배우에게, 스태프들에게 혹은 공연을 주관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배리어프리를 하는 의미와 가치와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배리어프리의 가치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언어로 흘러나오는 공연을 즐겁게, 공연 기간 내내, 좋아하는 배우를 보고 또 보며 설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연극과 배리어프리 연극을 보고 난 뒤 농인 엄마와 청인 자녀의 대화 속 감정을 함께 느껴주길 바란다.

#### 〈일반 연극〉을 보고 난 후

아이 (엄마를 가리키며 손짓) [키리마마(지화)] [우산] [사다]<sup>1→2</sup> [많이] [왜(의문표지)],  
[알아(의문표지)]  
엄마 (고개 가우뚱) …… [몰라]  
아이 [몰라(놀람)] [왜(의문표지)], [수어] [없다] [이해] [몰라(의문표지)]  
엄마 (끄덕) [너] [말하다]<sup>2→1</sup> [달라]

#### 〈배리어프리 연극〉을 보고 난 후

아이 (엄마를 가리키며 손짓) [키리마마(구렛나루+남자)] [우산] [사다]<sup>1→2</sup> [많이]  
[왜(의문표지)], [알아(의문표지)]  
엄마 [키리키리(원숭이)] [우산] [흠치다]<sup>1→2</sup> [때문에]  
아이 [맞다] [키리키리(원숭이)] [귀엽다]  
엄마 (끄덕) [연극] [재밌다] (웃음), [보다]<sup>1→2</sup> [또] [가다]

## 마주보기, 그리고 '듣기'의 연습

목소  
사운드디자이너

“한 밤 중 배에서 파도 소리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는 동물.”

나의 집에서,  
먼 곳에서 내가 녹음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배우들이 닿으려고 하는 실제의 존재와 그 존재들이 각각 품고 있을 세계들에 대해 생각한다. 파도 소리는 흔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간주되고,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저 낭만화된 소리 넘어 구체적인 바다의 일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아름다울 수 없는 소리를 넣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극의 세계와 그것이 몸을 맞댄 현실에서 무엇이 들려오는지 듣고자 하는 노력이 그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사운드는 몇 겹의 레이어 속에서 제 위치를 고민한다. 일차적으로 ‘인 더 씨어터’의 일루전을 그려 보이지만, 그것은 효과를 산출하기보다 일루전 자체로 제시될 뿐이다. 그리고 음악이 들려온다. 〈로드킬 인 더 씨어터〉의 음악은 정서적 기능으로 수렴되는 사후적인 수사가 아니라, 라이브 연주로 무대 위의 인물들과 함께 존재



하며 그 세계의 소리가 된다. 재현적인 소리는 가장 먼 곳에서 온다. 눈앞에 보이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파도 소리는 사건을 감싸고 무대 위의 비인간/인간 동물들의 몸을 통과해 관객에게 도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로질러, 배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견고한 목소리에 담긴 언어는 정확한 ‘바라보기’처럼 ‘듣기’의 연습을 통해서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복수의 세계들이 멈추는 순간을 향해 귀를 기울인다. “말할 수 없고, 말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sup>■</sup> 할지, 무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다.

■ 김애령, 『듣기의 윤리』,  
봄날의 날씨, 2020











## 스태프

작·연출—구자혜 Khoo Ja-hye

프로필 \_ 2페이지

무대·조명디자인—여신동 Yeo Shin-dong

[시노그래피(무대·조명·의상)]

연극 〈햄릿〉 〈데미안〉 〈지정〉 〈Oil〉 〈작가〉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래러미 프로젝트〉 〈이방인의 노래〉 〈노인과 바다〉 〈소녀가〉 〈가까스로 우리〉 외

[연출]

연극 〈pan123mE1〉 〈오렌지 북극곰〉 〈1,908초〉 〈비행소년 KW4839〉 〈사보이사우나〉 외

수상 2017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무대예술상 〈꾼빠이 이상〉 외

의상디자인—우영주 Woo Young-joo

연극 〈나무, 물고기, 달〉 〈엔통이의 동요나라〉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외설적인〉 〈데모크라시〉 〈7번국도〉 〈Tribes〉 〈동동〉 〈하드보일드멜랑콜리아〉 외

음악감독—이지구 Lee Earth

공연 〈라이브클럽 클럽 빵 기획공연〉 〈복합문화공간 야시시 기획공연〉 〈리를 위한 바자회X음악회〉 〈LG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바자회X음악회〉 〈카페 언플러그드 open mic〉 〈감성달빛 open mic〉 〈홍대 고인물. 이지구 생일 단독 공연〉 〈에반스 라운지. wonder night live〉 〈서울 매드프라이드. 매드 프렌즈〉 외

연극 〈꿈껌꿈껌꿈〉 〈DRAGX남장신사〉

음악감독—안마루 Ahn Maru

공연 〈라이브클럽 클럽 빵 기획공연〉 〈복합문화공간 야시시 기획공연〉 〈LG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바자회X음악회〉 〈카페 언플러그드 open mic〉 〈손수현과 안예은의 이 어달리기-트랜스젠더편〉 외

연극 〈꿈껌꿈껌꿈〉 〈DRAGX남장신사〉

사운드디자인—목소 Morceau J. Woo

연극 〈홍평국전〉 〈도덕의 계보학〉 〈이홍도 자서전 (나의 극작 인생)〉 〈미국연극/서울합창〉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영지〉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 〈스푸트니크〉 〈인정 투쟁; 예술가 편〉 〈7번국도〉 외

안무감독—최기섭 Choi Ki-sub

무용 〈퀴드〉 〈무용수-되기〉 〈질문들〉 〈기하학연습〉 〈연인들은 바닥없는 호수에서 헤엄친다〉 〈설탕이 녹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 〈I'm Sorry vol.2〉 외

분장디자인—장경숙 Jang Kyung-sook

연극 〈달콤한 노래〉 〈집집〉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목선〉 〈날아가 버린 새〉 외

수어통역—김홍남 Kim Hong-nam

연극 〈FRED〉 〈7번국도〉 〈만주전선〉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스카펄〉 외

뮤지컬 〈넌센스〉 〈현정아, 사랑해〉

수어통역—최황순 Choi Hwang-soon

연극 〈FRED〉 〈7번국도〉 〈우린 농담이(아니)야〉 외

음성해설 작—조연희 Cho Yeon-hui

[배리어프리 내레이션(영상)]

연극 〈스카펄〉

[배리어프리 내레이션(라이브)]

연극 〈여름이 지나갈 때〉 〈남산예술센터-대부흥성회〉 〈1인무대〉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묵적지수〉 〈명왕성에서〉 〈7번국도〉

뮤지컬 〈비상2〉

조연출—이효진 Yi Hyo-jin

[조연출]

연극 〈추락2〉 〈시소와 그네와 긴줄넘기〉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트라이앵글〉 외

[자막제작/오퍼레이터]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조연출—류혜영 Ryu Hye-yeong

[연출]

연극 〈꿈껌꿈껌꿈〉

[조연출]

연극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DRAGx남장신사〉 〈오직 관객만을 위한 두산아트 센터 스트리밍서비스공연〉 〈세 그루의 숲〉 〈Tribes〉 〈21세기...연극말이다〉 〈7번국도〉 〈대성당〉 〈전화벨이 울린다〉 외

## 만드는 사람들

### 출연

고애리 개 외

문예주 비둘기 외

박경구 비둘기 외

박소연 북미맷새 외

백우람 고라니 외

성수연 라이카

이리 비둘기 외

이상홍 개 외

이유진 새 외

전박찬 B

최순진 벨카와 스트렐카 외

연주 안마루

수어통역 김홍남 최황순



스태프

작·연출 구자혜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_대표 임정자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한국
	의상제작 씨앤엘(CnL)_대표 이시내	문화공장오감_대표 박종민
무대·조명 여신동	영상장비임차 제이미디어_대표 지부규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의상 우영주	조명장비임차 트리거 컴퍼니_대표 황종량	
음악감독 이지구 안마루		프로그램북 제작 박소영
사운드 목소	조명프로그램머 홍유진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안무 최기섭	조명팀 류한나 곽태준 서승희 정하영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분장 장경숙	윤혜린 이상혁 나홍선 김휘수 정우원	
무대디자인보 정용현	최인수	공연영상제작 디지컴코리아엠앤엠
조명디자인보 홍유진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_대표 김수기
조연출 이효진 류혜영	녹음 스튜디오 순이우주로_대표 유은결	
		티켓 김보전
수어통역 김홍남 최황순	영문 자막 번역 송섭별	매표 안내원 김경은 채수환
한글자막 이효진	영문 자막 감수 이리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음성해설 작 조연희 구자혜	영문 자막 제작·운영 최다형	하우스 안내원 이지은 정해룡 임예은
음성해설 감수 강내영		박다연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고정윤 채지성 김소희 고찬하 정여름
기술감독 김무석	홍보 이정현 최윤영	하라영 한현지 김가민 김현오 이호정
무대감독 김정빈	마케팅 김태은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조명감독·오퍼레이터 임수연	후원 이송이	프로듀서 김훈일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이병석	인턴 노소연	배리어프리 프로듀서 정채영
의상감독 박지수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제작진행 박소영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공연진행 김정연
무대진행 강수경 김대호 김지현		
의상진행 심새늘 김민주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제작 (재)국립극단
분장진행 장경숙 정서연 박진경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_대표 김은총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홍보사진 북촌애서_대표 이강물	사무국장 오현실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홍보영상 602STUDIO_대표 김영준	
	하이라이트영상 오솔로프로젝트	
	_대표 이영관	

#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꿈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김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 사무국장

오현실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유역·공사 |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유리경영·경영공시

##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정재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 박소영 연수단원

## 홍보마케팅팀

정웅성 팀장 | 최윤영 이정현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호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노소연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박지수 이승주 경은주 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 홍혜림 청년인턴 | 박설아 연수단원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정한솔 연구개발 |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사랑 II〉  
[창작공감: 연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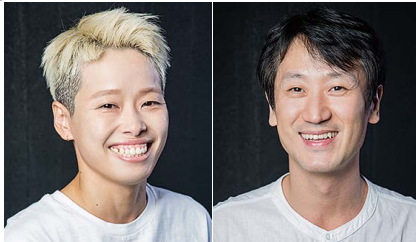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권은혜**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작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명기**

〈X의 비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김예림**

〈X의 비극〉  
〈사랑 II〉  
〈만선〉

함께합니다.



**박용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문예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박소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송석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만선〉

**이상홍**

〈X의 비극〉  
〈만선〉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유진**

〈X의 비극〉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 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 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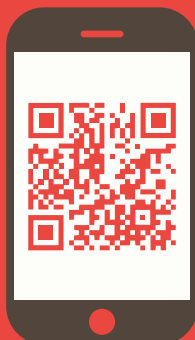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HINSEGAE  
D U T Y F R E E  
韩际新世界免税店

#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강남점 | 인천공항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www.ssgdfs.com](http://www.ssgdfs.com) | 고객센터 1661-8778



#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  
명동 북앤샵

02-6004-7391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BISTRO 수방.』**

02-3789-8679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 10% 할인



**오설록**

02-774-5460

티하우스 명동점

- 전체 메뉴 10% 할인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http://www.ntck.or.kr)

# 엔젤스 인 아메리카 Angels in America

##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번역 김진숙  
윤색 윤성호  
무대 조수현  
조명 강지혜  
음악·음향 지미세르  
의상 홍문기  
소품 최혜진  
분장 정지윤  
안무 이소영

출연  
박지일 전국향  
정경호 김보나  
권은혜 정환  
김세환 박용우

# 2021. 11. 26. - 12. 26.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SHINJEGAE  
푸른터벳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파크 1544-1555

#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이미 죽어 다시 몇 번이고 반복되어 펼쳐질 죽음은 무엇이 되려하는가.  
이것이 끝나면, 당신에게 조금은 그랬던 날이 되어버릴 그런 날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